

해남 사대부가 바라본 17세기 조선 일상사

‘윤이후의 지암일기’ 완역본 출간
7년여간 쓴 일기 번역
전염병 등 참혹한 현장 담겨
생활·친교, 노비 관련 기록도



윤이후의 집터로 추정되는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풍경. 가운데 위치한 한옥 주위 축림이 우거진 모습이 보인다.

“온몸이 붓고 가려우며 체내에 열이 발생하여 안절부절못하다가 물속에 뛰어들면 열기가 막혀 오그라들어 죽었다. 불을 가까이 하여 찜질하면 조금 안정된다. 근래 이곳에도 이런 변고가 있어,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 5, 6년의 흉년과 작년, 올해의 독한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또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갖가지 변고가 발생한다.”



위의 글은 1699년 5월 9일 지암(支菴) 윤이후(1636~1699)의 일기 일부분이다. 17세기 조선 사회 또한 오늘날과 같이 재난과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풀을 베다가 황색충의 독에 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윤이후는 운선도의 손자이자 공재 윤두서의 생부이다. ‘일민기’(逸民記) 가사의 작가이기도 하다. 윤이후는 함평현감을 끝으로 해남으로 내려와 머물렀다. 그의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일기다. 그는 1692년 1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나기 5일 전인 1699년 9월 9일까지 일기를 썼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쓴 일기는 일상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 자료로 부족함이 없다.

최근 출간돼 눈길을 끈다. ‘윤이후의 지암일기’(너머북스)는 17세기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기록한 ‘보물창고’에 다름 아니다. 하영휘 성균관대 교수, 문숙자 서울대 객원연구원, 김영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등이 번역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격주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물로 ‘윤이후의 지암일기’가 발간됐다. 하 교수는 옮긴이의 말에서 “각자가 작업해서 발표한 ‘지암일기’의 번역문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며, 우리는 그야말로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며 “‘지암일기’ 번역본이라는 작업의 결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노력의 과정 또한 결실 못지않게 값지다고 자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암 윤이후를 배출한 일가는 명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윤이후는 1679년 생원사예, 1689년 증광문과에 급제했다. 중앙관직을 거쳐 1691년 4월 함평현감에 부임하

지만 1692년 2월 관직에서 물러나 영암(현 재는 해남) 팔마의 농장으로 은퇴했다. 그가 쓴 ‘일민기’에는 당대의 정치와 경제, 사회상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세상이 날 버리니 나도 세상 버린 후에/강호에 임차 되어 일없이 누웠으니/ 어즈버, 부귀공명이 꿈이었던 듯하여라.” 윤이후가 ‘지암일기’를 쓴 17세기 조선 사회는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일기에 드러난 당시 상황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길 옆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었다. 참혹하다. 올해 흉년은 전에 없던 일이나, 영암과 해남은 모두 조금 낫다고들 한다. (중략) 길을 떠난 후 나주 위로는 보이는 참상이 더욱 심하고, 논 값이 1섬 혹은 30말(2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람 값은 1섬에도 못 미치고, 죽은 사람이 셀 수 없다. 광호촌만 해도 죽은 사람이 7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이로 미루어 다른 지역 상황도 알 만하다.”(1696년 4월 28일)

윤이후의 일기를 보면 당시가 ‘갑술옥사’로 남인이 실권하고 소론과 노론이 집권하던 시기다. 윤이후는 갑술옥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남인의 선봉에서 서인에 강하게 맞섰던 운선도의 손자이기’라고 하고 한때 그들과 동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기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풍수장이, 점쟁이, 의원, 침의, 장인, 재인, 약사, 가수, 절인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도 등장한다. 아울러 노비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는데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그의 일기는 가족과 친족, 이웃과 노비, 관리와 지역민 등 17세기 해남이란 시공간을 무대로 한 생활 및 친교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일뿐 아니라 부인과 자식에 관한 기록 외에도 자신과 내왕한 사람, 외출해 만난 사람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소설가협회 ‘2020 신춘문에 당선 소설집’ 출간

광주일보 ‘전자레인지’ 등 수록



2020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이한솔 씨의 ‘전자레인지’를 비롯해 신춘문에 당선 작품을 수록한 소설집이 나왔다. 한국소설가협회가 발간한 ‘2020 신춘문에 당선소설집’에는 한국 문단 등용의 관문인 신춘문을 통과한 신예 작가들의 작품이 담겨 있다. 모두 23편이 실린 작품집은 수천 명의 경쟁자를 뚫고 당당하게 밝힌 신예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들 작품은 신인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과 향후 발전 가능성, 작품 세계 등을 일정 부분 가늠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당선소감과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곁들여 있어 선정 과정뿐 아니라 당선 통보를 받던 당시의 설렘과 기쁨 등도 엿볼 수 있다. 김지연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이 책은 통탄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마지막 정신적 파수꾼이 되어 보겠다는, 그보다는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천형의 업보를 타고 세상에 태어난, 작가 지망 학생들의 필독의 양서임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인 창작·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

소득·재산 심사 대상
본인·배우자로 축소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용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용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였다. 경제 부분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도 450여명 수준에서 올해부터 800명까지 늘렸다. 아울러 예술인 학부모가 어린이집 신청 시,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지원금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돼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올해 1만2000명으로 지난해 5500명보다 2배 이상 확대하며 생활안정자금 용자도 190억원으로 작년 85억원의 2배 이상 늘린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된다.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을 위한 조치다. 신청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낮췄으며 1인당 300만원 격년제로 신청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살아온 삶 솔직 담백하게 그려

곡성 출신 오경심 수필가
에세이집 ‘놀러온 편지’ 펴내



“인생은 여행이라고 했다. 살아보니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세상에 왔다가 나를 찾아 떠나고 여행이다. 처음부터 나침반을 들고 동서남북을 타진하며 찾아가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 준비없이 나갔다가 먼길 돌아서 귀향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것이든 어떠다.” 곡성 출신 오경심 수필가가 에세이집 ‘놀러온 편지’(수필과비평사)를 펴냈다. 모두 40편이 담긴 작품집에는 ‘반지’, ‘명행선’, ‘중추절 수련회’, ‘외로움은 안개처럼’ 등 모두 404 편의 글이 담겨 있

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기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저자는 “인생 전체가 외로움이었고 고독이었던 어머니, 삶이 곧 투쟁이었던 어머니를 가장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작품에서는 특유의 사색과 정적, 은화함이 흐른다. 자신이 살아온 길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미화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

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과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장르인 수필이 담백함과 여운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향아 시인은 해설에서 “오경심의 이번 수필집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사모곡이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을 때까지 설렘 몇 겹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는 어머니와 다시 모녀의 관계로 만나고 싶어 한다”며 발간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오 수필가는 광주교육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2001년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했다. 광주문학, 곡성문학, 시세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女新 나르샤’ 참가자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이 도내 여성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남여성문화박람회 공모전 ‘女新 나르샤’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개인전 경력 이 없는 여성문화-예술인이다. 모집부문은 미술(회화·조소·그림·도예), 공예(가죽·한지·천연염색·규방), 건축, 사진, 음악, 문학, 복식, 디자인 등이다. 공모신청은 4월 17일까지이며 지원서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재단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여성의전화, 상담학교 수강생 20명 모집

3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성운동의 역사, 성평등 감수성 키우기 등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개인전 경력 이 없는 여성문화-예술인이다. 모집부문은 미술(회화·조소·그림·도예), 공예(가죽·한지·천연염색·규방), 건축, 사진, 음악, 문학, 복식, 디자인 등이다. 공모신청은 4월 17일까지이며 지원서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재단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광주여성의전화가 제31기 상담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담학교는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8강좌로 구성된 교육은 3월 4일~19일(매주 수·목·금 오전 9시20분~낮 12시) 광주여성의전화 해심교육실(광주시 서구 내방로 40번길 15)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여성주의 상담이론, 페미니즘의 도전, 가정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여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택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회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병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표지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근처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국수전문점 ☎061)332-9992, 010-7103-2556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완도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